

남원시, 주요 현안 대선 공약 반영

정당별 지역 공약 발표... 지역 발전 위한 공약 반영에 기대감 커져

남원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에서는 지역공약을 구체화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말에 각 정당이 발표한 지역공약에는 남원시의 주요 현안들이 반영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남원시 공약은 5개로 △국도 중부권·남부권 연결 광역 교통망 체계 개선 지원 △공공의과대학 설립 적극 추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지원 △남원성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조성 지원 △삼산산업 인프라 및 수행기관 유치 지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에는 △주요 국도·국지도 제6차 건설 계획 반영 △남원 국립스포츠클럽훈련원 정상 추진 △남원 ECO스마트팜 산업지구 등이 반영되었다.

이외 정당과 후보측에서는 지역공약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남원시에서는 공약 발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주요 현안들의 추진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남원시는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주요 현안 사업들의 추진 동력 마련을 위한 대선공약 사업을 발굴하고 정당별 지역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을 이어왔으며, 정당별 지역공약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

과정을 거쳐 국정과제 반영 등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약 중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공약에 대해 충남 아산시 공약과 중복되었으나, 남원시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유지 개발이라는 경제성 등 타당성을 앞세워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공약에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이 대거 반영되었으나, 지금부터는 이러한 공약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약들이 정책으로써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전 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발효테마파크'가 가족 단위 관광객과 어린이들의 체력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순창발효테마파크 '인기몰이'

어린이 동반 가족들 교육·놀이·체험 등 즐길 수 있어

'순창발효테마파크'가 가족 단위 관광객과 어린이들의 체력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발효여행 순창을 주제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교육과 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약 44만 5천㎡의 넓은 대지에 조성된 국내 유일의 발효 종합 문화공간이다.

발효테마파크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교육, 과학, 놀이가 융합된 융복합 체험 공간으로서 주말마다 관광객과 수도권 등지에서 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발효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놀이 천국'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다.

실내 스포츠 복합시설인 '공이관' 1층에서는 피트니스, 사이클 시뮬레이션, 양벽등반, 디더널 등 4차 산업 기반의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의 흥미를 끌고 있다.

그 중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

된 '공이관' 장독대 형상의 놀이터와 발효의 3요소(바탕·빛·물)를 활용한 과학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효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미생물의 세계 속 마술사가 되어 보며 미생물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놀이체험존 '공이관'과 50여종의 아열대 식물이 가득한 '다년생식물원'에서는 자연 속 휴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체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더욱 탄탄히 하고 있다.

특히, 테마파크의 체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숙박 및 여가시설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오는 6월에는 어린이용 풀장과 워터슬라이드 등을 갖춘 대규모 물놀이 시설이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개장한 '천혜이글랜드'는 주말마다 조기 예약 마감이 이어질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발효테마파크는 전통문화를 체험과 첨단 놀이 콘텐츠가 조화를 이루는 전국 유일의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프로그램과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서울장미축제도 반한 임실엔치즈

중앙 서울장미축제 교류 부스 참여... 시민 뜨거운 호응

국내 유일의 치즈 특화 지역브랜드 임실엔치즈가 임실엔치즈클러스터의 제17회 중앙 서울장미축제 교류 부스 참여로 유제품 품질과 브랜드 지력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중랑구 중랑천 일대에서 열린 축제에서 임실엔치즈클러스터는 치즈, 요구르트 등 임실엔치즈 프리미엄 유제품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군은 특히 우호 교류지인 서울 중랑구에서 개최하는 중앙 서울장미축제에 임실엔치즈 판매행사와 함께 고향 사랑기부제 안내 및 SNS 구독 홍보 활동을 펼쳐 2025 입실 방문의 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지난 2016년 중랑구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 두 지자체는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이번

행사 또한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 임실엔치즈클러스터가 운영한 판매 부스는, 장미꽃 사이에서 즐기는 명품 임실엔치즈의 품미에 감탄한 시민·관광객들로 북적였으며, 준비한 제품이 대부분 일찌감치 완판될 만큼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축제에서 임실엔치즈클러스터는 참가한 3일 동안 총 1400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임실엔치즈 브랜드 인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축제에는 2025년 입실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안내, 임실군 주요 관광지 및 축제 등 관광 정보 제공, 임실군청 공식 유튜브이자 홍보 채널인 임실엔TV 구독 인증 이벤트 등 풍성한 콘텐츠로 현장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임실군 SNS 구독자 대상으로 진행한 톨렛 기념품 증정 이벤트는 다양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순식간에 인파가 불러 북새통을 이뤘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도시재생지원센터, 금동 '골목주민 숨씨자랑' 열려

남원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5 금동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 '나도 너랑, 언제나 함께 도랑마을'의 일환으로, 금동 14동 일원에서 '골목주민 숨씨자랑'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의 고유한 손맛을 발굴하고 금동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으로 구축 예정인 도랑마을 활력센터에서 운영될 반찬가게 사업의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행사 역

시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향후 2년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도랑마을만의 색이 담긴 축제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주민 먹거리 숨씨 경연 △축제음식(잔치국수, 해물과전, 초계무침) 나눔 △압화부채 만들기 체험 △로컬푸드 음료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지역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행사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 '순창 MAMA투어' 3회차 성료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 7일 '마로 가는 마음여행'을 주제로 한 순창 MAMA투어 3회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는 순창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유촌마을 탐방으로 시작해, 고즈넉한 민간정원 초연당 산책, 섬진강 자전거길 트레킹, 그리고 보물찾기 이벤트까지 다채로운 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섬진강 일대를 따라 펼쳐진 풍경을 감상하며 걷는 자전거길 코스는 초여름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원래 예정되었던 카약 체험은 유속 증가로 인해 안전상의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지



만, 참가자들은 섬진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여유롭게 감상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참가자들은 걷고, 타고,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자연에 맡기는 여정을 경험하며 순창의 매력을 깊이 있게 체험했다. 투어 마지막에 진행된 보물찾기 이벤트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유쾌하게 마무리되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지자체 환경관리 실태평가 2년 연속 '1위'

임실군이 환경부가 실시한 '2025년 지자체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1위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 관리 유도 및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17개 광역 시도와 228개 시군구 총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률, 위반률 및 오염도 검사율 등 환경 관리 실적을 심사했다.

임실군은 전국 우수 지자체 선정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군은 지난해 대기·폐수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오염도 검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4건, 적권 폐쇄 8건, 조업정지 2건 등 14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아울러, 노후 방지 시설 교체 지원,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환경전문기술인력과 컨설팅 및 환경기술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 사업장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도 주력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소방서, 공사장 용접 용단 작업 시 화재 주의 당부

임실소방서(서장 김삼곤)는 불철 건조한 날씨가 공사장 내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용접·용단은 금속을 자르거나 불이기 위해 고열과 불꽃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부주의할 경우 불타가 주변 가연물에 옮겨붙어 대형 화재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특히 불철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번질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서는 △용접 작업 등 화기 취급 시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장비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및 용접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 통보 △용접·용단 작업 시 가연물 제거 △용접 작업 후 주변 진원물 확인 및 제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권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단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단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